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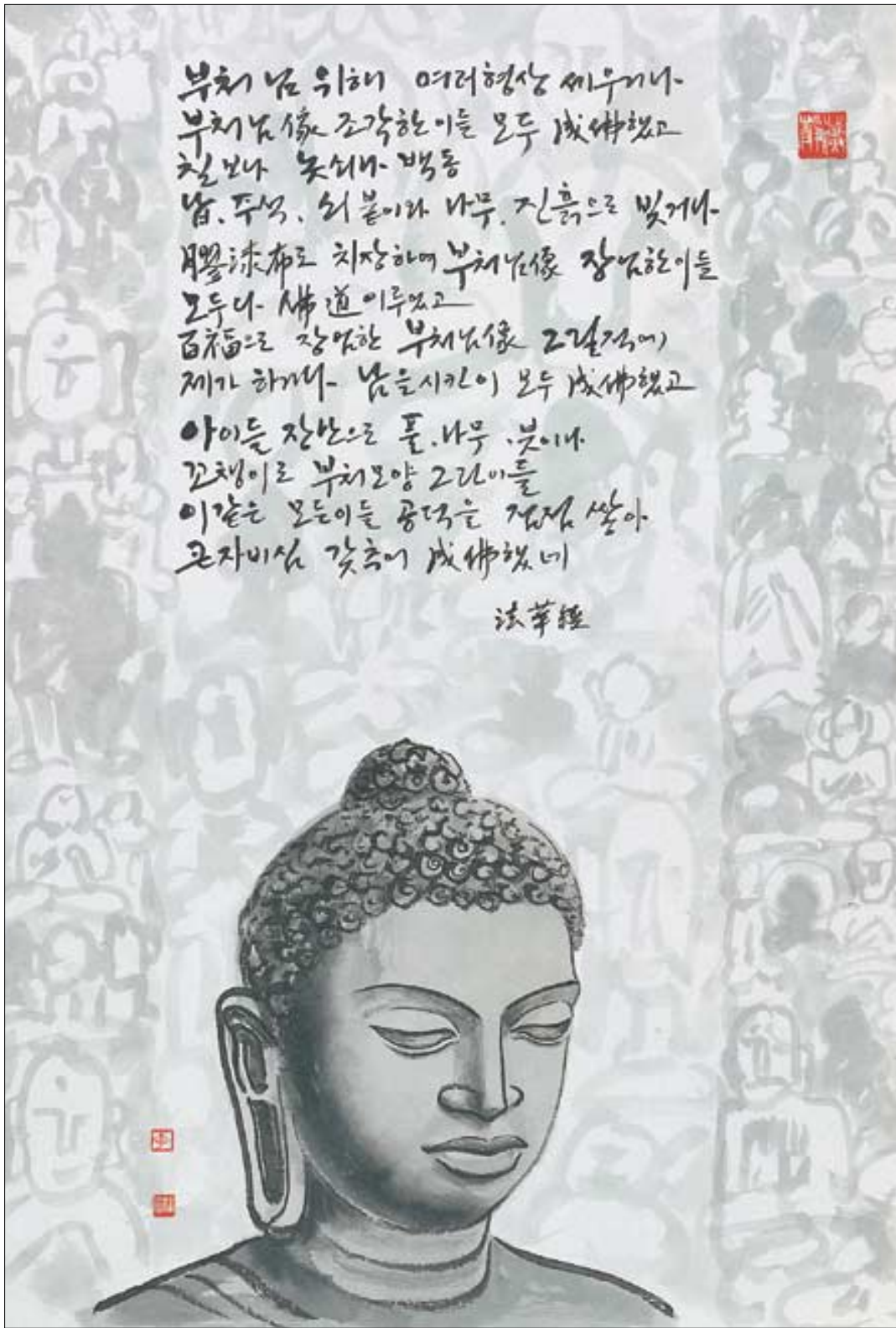
# 인도 그림기행 13

그림·글 이호신

##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처상 아닐까?

### 나를 닮은 붓다를 찾아서

(마투라 불상 소묘)



◀마투라의 불상(64×94cm).

도판속 그리움으로 자생불 친견 대신

가장 인도적인 '마투라 불상' 명성은 여전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연암 박지원)

오후 1시경 국립박물관을 나서 쉬지 않고 아무나강을 끼고 달려 온 마투라. 145km를 달려 고고박물관에 당도한 시간이 오후 5시 40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물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5시 폐관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현지 가이드 라젠싱이 휴대폰으로 수없이 사정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인도인끼리 얼굴을 붉히고 일행 모두 허탈했다.

잠시 전 국립박물관에서 본 마투라 불상의 생생한 조우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상의 세련미와는 달리 자생불상(自生佛像)으로 인도인의 골격이 뚜렷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자생불상의 연원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마투라박물관의 불상전문관을 두고 인도에 오기 전 자료를 뒤적이며 설레었던 꿈이 사그라질 판이다.

내부 행사 중간이라 내일도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절망속에서 다음 여정인 아그라로 향하는 여정은 결국 회한의 길이 되고 말았다. 확인하지 못한 도판속의 불상(마투라 박물관 소장)이 불현듯 그리워지고 다음 기대로 지나왔던 국립박물관의 마투라 불상이 내게 도로 눈을 감게 하며 지팡이에 의지하듯 기억을 더듬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힌두교 성지요, '크리슈나'의 탄생지로 비슈누신(神)을 찾는 곳이 되고 있지만 초기 불상의 발생지로서 마투라는 여전히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다. 즉 숭가, 쿠사나, 굽타왕조에 걸쳐 가장 인도적인 분위기의 불상이 조성된 자연조건이 있었다. 이 마투라 지역은 갠지스강의 지류인 아무나강 유역으로 간다라에서 편잡을 거쳐 내려와 갠지스강 중·하류의 마가다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다. 또 인도 서남부로 가는 길도 이곳에서 갈랐고, 지금도 인도에서 4개의 철도 노선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속에 자기문화의 고취로 드러난 불상이 마투라의 특징인 것이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 조형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마투라 불상은 순 인도적인 조형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최완수)

그 구체적인 도판(이주형, <간다라 미술> p145)을 살펴보면 꼭 어디선가 만나본 인도 청년 모습의 불주이다. 큰 눈망울에 끈고 넓은 코, 두툼한 입술에 둥근 얼굴이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나뉘어(머리모양만 없다면 평범한 소년 얼굴 모습이다.

불상은 스투파와 법륜등의 무불상 시대에서 기원 후 1세기경에서 나타난 데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곳이 마투라와 간다라 지역이다. 마투라의 불교미술이 고대 인도미술의 기초위에서 등장한 반면 간다라 미술은 거의 전적으로 외래미술, 특히 서양고대 후기 미술을 모티브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이주형, <불교미술> p38)

살펴보는 도판으로도 그 느낌이 현저한데 예컨대 마투라박물관 소장의 '보살명불삼존비상(菩薩銘佛三尊佛像)'은 육감적인 청년의 씩씩한 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는 인도인의 얼굴이 느껴진다. 부처를 닮은 친근미를 표현함으로써 이웃 모두 하나가 되고 싶어한 까닭이 명문으로 새겨져 있다.

붓다카타의 어머니 아모하이시는 자신의 절에 보살상을 만들어 모신다. 일체 중생의 이익과 인락을 위하여.

또한 불상의 형식을 살피면 마침내 협시인물(脇侍人物)이 등장함으로써, 삼존불상의 시원 양식이 되고 있다. 한편 '보살'이라는 칭호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개 마투라의 불상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로서 살펴지는 것이다.

즉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붓다가 아니라 보살의 자비로써 누구에게나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래를 지어 부처의 형상을 찬미하고 수도 없이 '자신을 닮은 부처'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부처님 위해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 상 조각한 이들 모두 성불했고, 칠보나 돛쇠나 백동, 납, 주석, 쇠덩이 나뭇잎, 진흙으로 만들거나 교칠포(膠漆布)로 치장하여 부처님상 장엄한 이들 모두 다 불도(佛道)를 이루었고 백복(百福)으로 장엄한 부처님 상 그림적에 제가 하거나 남 시킨 이들 모두 다 성불했고, 아이들 장난으로 풀, 나무, 붓이나 교창이로 부처 모양 그림이든, 이 같은 모든이들 공덕을 점점 쌓아 큰 자비심 갖추어 성불했네. (법화경) (이운허 역(李耘虛譯))

이 마투라 불상은 점차 초기불상에서 보이던 발랄한 소년의 천진성이 감소되고 웃음이 머금어 약간 감긴 눈과 과장된 입술 돌레선이 유도하는 신비로운 미소에 의해서 고요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변한다. 이 요소들이 마침내 세계조각 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체표현을 구비한 굽타 불상양식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이 불상의 연원은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에 전해지는 대해의 물결속에서 서로의 표정을 달리하고 상징과 교리의 해석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간 것이다.

나그네는 불현듯 마투라의 불상속에서 인도인을 보았듯이 한국의 불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불상을 떠올리며 한국인을 닮은 부처상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진다.

올 해가 가기 전에 결망을 지고 산사를 찾아 꼭 나를 닮은 부처를 만나고 싶다. 그리하여 마투라의 회한을 씻어 보고 싶다. 그 래서일까. 지금은 도로 눈을 감은 채 마투라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다. lhs1957@lycos.co.kr



◀보살명불삼존비상(64×4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신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 각인사(033-661-6117)에 계 의 다리 하나를 떨궜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 시는 법민스님(011-379-6117)은 어느 로 말을 했으며,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지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40대 중반의 여성 않는다고 마구 노여워 했다(신도의 시어머 신도와 상담을 하게되었는데 그 신도는 남 니는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편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얼마 전에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손의 사업을 망하게 부도가 나면서 망해버렸고, 대학생인 아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우환이 도 가출을 해버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갖들게 했으며, 신도의 시어머니를 동짓달 고통스러워서 아침부터 절을 찾게 되었다 이 되면 저승길로 데려가겠다고 예언했다. 고 했다. 스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신 그러나, 그 신도는 명상상태에서 본 사실을 도를 깊은 명상상태로 인도한 순간, 그 신 강하게 부정을 하였고, 아무 조치 없이 시 도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시택의 작 일이 지났다. 그런데, 동짓달이 되자 신도 은할아버지영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 의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쓰러졌 다. 시택 작은할아버지 영가는 두 눈을 부 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4월 17일에는 립뜨고 나타나 호통을 치기 시작했는데 내 병상에 가만히 누운 채로 뇌출혈을 일으켰 용인 즉, 몇 년 전에 묘지를 이장할 때 자신 다고 한다.

###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식(자연영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영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기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 8월 3해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